

# 대차대조표 계정의 마감방법



조        용        희  
<영남대 축대 교수>

## 대차대조표계정의 마감법

우리는 원장계정을 마감함에 즈음하여, 우선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기 위하여 집합 손익계정을 설정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에 속하는 계정을 한데 모았다. 그리고 계산된 순손익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손익계정의 마감을 위한 대체기입은 직접 총계정원장에 기입되지 않고 분개장을 경유하게 되는데 기록된 분개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익과 비용에 관한 계정을 마감하고 순손익을 산출해서 자본금계정에 대체하고나면, 다음에는 대차대조표 계정이 남는다.

## 대차대조표계정은 어떻게 마감하나?

원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차대조표의 제계정은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과 경영에 투하된 자본액(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명백히 하는 제

\* 대륙식 마감법에 의한 각 계정의 마감은 마치 손익 계산서의 각 계정을 마감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에 관한 계정의 잔액을 한곳에 모으기 위해 집합 손익 계정을 만드는 것과 같다.

\* 대륙식 마감법은 원리적이고 정규적이어서 잘 이용되지 않지만 영미식방법은 이해하기만 하면 계정의 마감은 문제되지 않는다.

분 개 장

1973년 월 일	적 요	원 면	차 변	대 변
11. 30	결산분개			
"	계좌 (손익)			485,600
	(계란수익)	376,800		
	(계분수익)	32,000		
	(부로일러수익)	76,800		
	수익을 손익계정에 대체함			
"	(손익) 계좌	522,350		
	(초생추비)		45,000	
	(구입사료비)		370,000	
	(수도광열비)		10,500	
	(노 일)		20,000	
	(수선유지비)		27,000	
	(여비교통비)		2,000	
	(사 무 비)		600	
	(지 급 이 자)		7,000	
	(감가상각비)		40,250	
	비용을 손익 계정에 대체함			
"	(손익)			36,750
	(자본금)	36,750		
	순손실을 자본금 계 정에 대체함			

정이므로, 수익과 비용과는 달리, 경영이 계속되는 한 항상 그 현재액이 원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결산시 마감하는 방법도 손실 및 수익계정과 달리 그 기간중에 발생한 증감을 계산하여 결산당시의 현재액을 명백히 해 둘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들 자산·부채·자본은 다음기로 넘겨(移越) 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원장계정을 마감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대륙의 여러나라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대륙식 마감법(大陸式)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미국 영국에서 행해지는 영미식(英美式) 마감법이다.

영미식마감법이건 대륙식 마감법이건 어느 것이나 수익과 비용의 각계정을 마감하는 방법은 같다. 그러나 자산·부채·자본의 각계정을 마감하는 방법에서는 각 각 틀린다.

대륙식마감법은 가장 이론적이고 정규적인

방법인 반면 여러가지의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번거로운 점이 있다. 그런가 하면 영미식 마감법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나,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면에서 보다 간편하게 약식의 방법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무계에서는 간편해서 사무능률을 올릴 수 있는 영미식 마감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양계장의 원장계정은 영미식 방법에 의해서 마감을 하기로 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기절차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하지만 대륙식 마감법도 이해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륙식마감법에 관하여는, 일일이 원장계정면을 제시하기가 번잡하므로 간단한 예를 통해서 방법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기로 한다.

대륙식 마감법

1) 각 계정의 마감

대륙식 마감법에서는 자산·부채·자본의 각 계정 잔액을 일단 하나의 계정으로 모으기 위하여 "잔액계정(殘額計定); (Closing balance a/c; 이를 決算殘額計定 혹은 閉鎖殘額計定이라고도 함)"이라는 집합계정을 원장의 맨끝에 설정한다. 이는 마치 손익계산서의 각 계정을 마감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에 관한 계정의 잔액을 한곳에 모으기 위하여 집합손익계정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잔액계정에 모든 대차대조표 계정을 모으기 위하여, 자산에 속하는 모든 계정의 잔액은 잔액계정의 차변에, 그리고 부채와 자본에 속하는 모든계정의 잔액은 잔액계정의 대변에 대체하는 것이다.

잔 액 계 정

자 산 계 계 정	부 채 계 계 정
잔 액	잔 액
	자 본 계 계 정
	잔 액

그러면 여기서 한가지의 예를 들어 본다. 어느 농장의 원장에서 대차대조표 각 계정의

기말 잔액이 각 각 다음과 같음을 알았다고 하자.

{	현 금 ₩ 50,	{	외상매입금 ₩ 20
	예 금 ₩ 30,		차 입 금 ₩ 50
	산란계군 ₩ 80,		자 본 금 ₩ 90

그런데, 위의 예에 있는 현금계정의 내역을 보니 다음과 같았다고 하자,

**현 금 계 정**

계란수익	90	수선유지비	30
계란수익	80	노 입	240
외상매출금	220	수도광열비	70

위의 현금계정 내역에서 차변합계(390)가 대변합계(340)보다 50원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금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50원이 나타난다. 이 50원이 위의 예에서 제시한 기말잔액으로서의 50원이다. 물론 다른 계정들도 이와같은 내역이 있지만, 현금계정의 예로서 다른 계정들의 잔액을 이해할 줄안다.

그러면 위의 현금계정을 대차평균(貸借平均)시켜 마감해야 한다. 동시에 차변에 남아 있는 잔액을 잔액계정에 집합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계정의 차변에 있는 잔액 ₩50을 잔액계정의 차변으로 보내고, 동시에 현금계정의 대변에 50원을 기록해서 대차를 일치시키는 분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하고, 이를 각 각 해당계정에 전기하게 된다.

차) 잔액 ₩ 50 대) 현금 ₩50 대륙식 마감법에서는 “모든 계정에서의 기입은 분개장의 분개를 전기함으로써 행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들 모든 계정의 잔액을 잔액계정에 대체할 때는 일일히 분개장에 분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분개의 요령은 손익 계정에 대체와 마찬가지로, 잔액은 묶어서 하되, 잔액계정에 전기는 과목별로 일일히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다.

차) 잔액 160 대)	{	현 금	50
		예 금	30
		산란계군	80

차) {	외상매입금	20	대) 잔액 160
	차 입 금	50	
	자 본 금	90	

이와같이 대체가 끝나면, 아래의 현금 계정처럼, 모든 계정의 대차합계는 잘못이 없는 한 서로 일치하여 마감되므로 계정이 폐쇄된다.

**현 금 계 정**

계란수익	90	수선유지비	30
계란수익	80	노 입	240
외상매출금	220	수도광열비	70
		※잔 액	50
390		390	

이와 같이 모든 다른 계정들도 마감되고, 동시에 잔액계정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마감된다.

**잔 액 계 정**

※ 현 금	50	외상매입금	20
예 금	30	차 입 금	50
산란계군	80	자 본 금	90
160		160	

잔액계정의 경우에도 수속이 정확했다면 자연스럽게 대차가 일치한다. 그런데 여기서 현금계정과 잔액계정을 대조해 보면, 잔액계정은 자동적으로 대차가 일치되어 “잔액”이라는 새로운 과목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잔액계정에 잔액없다”라는 말이 성립된다. 따라서 잔액계정은 스스로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자검작용(自檢作用)을 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따로 이 검증(檢證)을 하기 위한 시산표(試算表) 같은 것은 만들어 볼 필요가 없다.

이상과 같이 모든 계정들은 전부 마감되어, 결국 총계정 원장의 모든 마감절차는 일단 끝난다. 단지 계속되는 경영을 위하여 자산·자본·부채의 이월액을 새로운 사업년도로 옮겨 두는 절차만 남았다.

**2) 개시기입**

계속되는 경영을 위해서는 자산·부채자본

의 잔액을 차기초일자(次期初日字)로 이월하여 개시기장(開始記帳)을 해야 한다. 이것을 개시기입(開始記入)이라고 한다.

개시기입을 위해서도 잔액계정을 설치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의 잔액계정을 특히 개시잔액계정(開始殘額計定)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원장의 각 계정을 마감할때 설정했던 잔액계정인 결산잔액계정(혹은 폐쇄잔액계정)과는 구별이 된다.

개시잔액계정을 설정하여 이월기입을 하는 경우에는, 결산잔액계정에 모으는 경우와 정반대로, 다음과 같은 분개에 의해서 잔액을 이월시키게 된다.

차) {	현 금 50	대) 개시잔액 160
	예 금 30	
	산란계군 80	
차) 개시잔액 160	대) {	
	외상매입금 20	
	차 입 금 50	
	자 본 금 90	

따라서 현금계정은 다음과 같이 잔액 있는 쪽(차변)에 이월액이 기입된다. 물론 다른 계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월액 즉 “개시잔액”이 기입되는 날자는 차기초일(次期初日)이다.

**현 금 계 정**

계란수익 90	수선유지비 30
계란수익 80	노 임 240
외상매출금 220	수도광열비 70
/	잔 액 50
<u>390</u>	<u>390</u>
개시잔액 50	

그리고 개시잔액계정에는 다음과 같이 전기된다.

**개시잔액 계 정**

외상매입금 20	현 금 50
차 입 금 50	예 금 30
자 본 금 90	산란계군 80
<u>160</u>	<u>160</u>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륙식 마감법은 부기이론상 가장 정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형식적인 여러가지의 절차가 수고스럽고도 번거롭게 전개 됨으로 실무계(實務界)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각 계정을 이월시키는 개시기입에서 조차 새로운 잔액계정인 개시잔액계정을 설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륙식 마감법에서도 이월기입을 하는 방법만은 형식적이고 사무량을 많게 하는 개시잔액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즉, 차변의 제과목(諸科目)과 대변의 제과목을 서로 대립시켜 분개하는, 다음과 같은 개시분개에 의하여 개시기입을 하게 된다.

차) {	현 금 50	대) {	외상매입금 20
	예 금 30		차 입 금 50
	산란계군 80		자 본 금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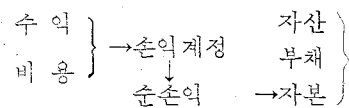
이렇게 하면 좀더 간편해지며, 각 계정의 이월기입은 차기 첫날자로 <전기이월>액을 기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의 현금계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 금 계 정**

계란수익 90	수선유지비 30
계란수익 80	노 임 240
외상매출금 220	수도광열비 70
/	잔 액 50
<u>390</u>	<u>390</u>
전기이월 50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절차를 통해서 대륙식 마감법에 의한 결산본절차(決算本節次)는 끝난다. 이를 한번 더 요약 설명하면 다음 순서와 같다.

① 손익계정(損益計定)에서 산정(算定)된 순손익 純損益을 자본금계정에 대체한다.



② 잔액계정(決算殘額計定)을 설정하여, 자산·부채·자본의 계정잔액을 분개장을 통하여 제정액(결산잔액)에 집계한다.

자 산 }  
부 채 } → 잔액계정  
자 본 }

③ 차기초일자(次期初日字)로 분개 장에서 개시분개(開始分介)를 하되, 개시잔액계정(開始殘額計定)을 설정하고 이를 상대계정으로 하여 자산·부채·자본의 계정을 분개하는데, 이때, 결산잔액계정에 집계하는 경우와는 정반대로 분개하여 이월액(移越額)이 기입되도록 한다.

## 2. 영미식마감법

이상에서 대륙식마감법을 설명하였거니와, 부기란 일반적으로 딱딱하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어온 터에, 계정을 마감하는 방법조차 굉장히 번잡하다고 초보자들은 짜증을 낼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대륙식 마감법은, 어디까지나 원리적이고 정구적인 방법일뿐 실무계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으므로 너무 염려할 것 없다. 만약 대륙식 마감법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다음에 설명할 영미식 방법을 이해하기만 하면 계정의 마감은 문제가 없다.

요컨대, 영미식방법에서도 손익계정의 마감 방법은 대륙식방법의 경우와 같다. 단지 영미식마감법에서는 잔액계정을 설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산·부채·자본의 각 계정 잔액을 분개장을 통해서 분개하지 않는다. 다만 각 계정의대차(貸借) 적은 편에 그 차액을 “차기이월(次期移越)”이라고 주기(朱記)하여 균형을 취하고 원장의 계정을 차례로 마감한다. 그리고 다음 줄의 대차반대측(貸借反對側)에 “전기이월(前期移越)”이라고 기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마감방법은 대단히 간단하게 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실제계정(實體計定), 즉자산·부채·자본의 잔액이 과연 대차평균되었는지 어떤지는 명백치 않다. 그래서 마감 후에 새로운 시산표를 만들어 검증을 해보게 되는데 이를 이월시산표(移越試算表)라고 한다. 이때 이월시산표는 실질적으로 대륙식마감법의 잔액계정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 만든 예로서 영미식마감법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 1) 각 계정의 마감

우선 앞의 예에서 마감되기 직전의 현금계정을 다시 적어 본다.

#### 현금계정

계란수익	90	수선유지비	30
계란수익	80	노임	240
의상매출금	220	수도광열비	70

위의 현금계정을 보면 대변에 50원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대변에 “차기이월”의 표시를 하고 부족금액 50원을 기록한다. 이때에 이러한 기록은 붉은색으로 기입된다.

물론 자산계정은 차변에 잔액이 나오므로 대변에 차기이월액이 기입되고, 부채와 자본계정은 대변에 잔액이 나오므로 차변에 차기이월액이 기입된다.

그다음은 합계선을 긋고 그 밑에 합계액을 내어 대차를 일치시킨 다음, 마감선을 그어 당기의 기록을 마감한다.

이와 같이 마감한 후에는 “차기 이월”쪽의 반대편에 “전기 이월”이라 표시를 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는다. 이때 이기일(移記日)은 다음회계 기간의 첫날자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영미식마감법에 있어서는, 차기이월이 분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루어지므로, 분개장에서 전기된 것이 아님을 밝혀 두는 의미에서, 분개란에 “√”표를 하여 둔다.

#### 현금계정

월일	적	요	분면	금액	월일	적	요	분면	금액
	계란수익			90		수선유지비			30
	계란수익			80		노임			240
	의상매출금			220		수도광열비			70
	/					※차기이월	※		50
				390					390
	전기이월차			50					

## 2) 이월시산표의 작성

이상과 같이 영미식마감법은 자산·부채·자본계정을 계정 제자리에서 바로 이월시켰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현재액을 한데 모아다 평균 시켜보지 않으면 수속의 정확여부를 장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차기이월액을 모아서 이월시산표를 만들어보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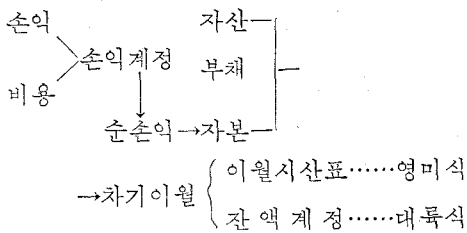
그러면 앞서 예로 든 여러 계정들의 잔액, 즉 이월액으로 시산표를 만들어, 보기로 한다.

이월시산표

차	변	계정 과 목	대	변
	50	현 금		
	30	예 금		
	80	산 란 계 균		
		외 상 매 입 금		20
		차 입 금		50
		자 본 금		90
	160			160

이월시산표가 작성되어 대차가 일치하면 마감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이상으로 대륙식마감법과 영미식마감법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했는데, 이를 종합해서 두가지의 마감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은 수속임을 알 수 있다.



\* 장부의 기장을 철저히 하여  
소익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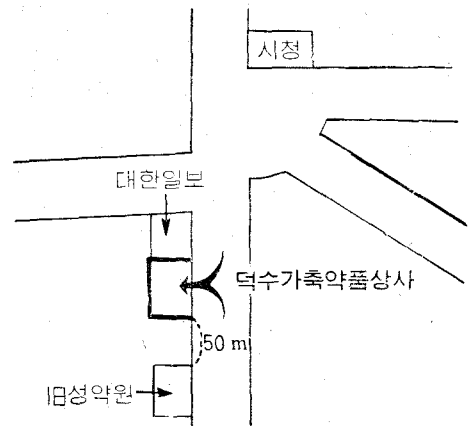
## 가축약품총판

- ◇ 예방제
- ◇ 치료제
- ◇ 사료첨가제
- ◇ 소독제
- ◇ 기타 국내외 수입약품 일체

養鷄, 養豚, 肉牛,  
乳牛用 動物醫藥品

專門店

덕수가축약품상사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44-3  
TEL. 28-0645